

May 24 인도하심 구하기

- 마태복음 6:13; 히브리서 12:1-2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마 6:13). 주기
도문의 마지막 부분은 우리 신앙과 삶에 특허나 중요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죄와 악에서 벗어나는 것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무언가로부터’ 구원받는 것을 넘어 ‘무엇으로’ 인도해 달라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는 기도는 우리에게 ‘의지’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럴 ‘능력’이 없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늘 주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을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은 결코 가볍지 않고, 무시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시험을 이길 힘을 주시고, 비껴 갈 길을 예비하십니다. 주님은 나를 구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며,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해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과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단순히 말로 기도하는 것 이상의 의미입니다.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시 25:4-5). 이러한 상태는 어느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 없이 훈련받아야만 어떤 상황에서도 반사적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은 그렇게 살겠다는 결단을 동반해야 합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뜻을 묻고 순종하는 일이 몸에 배도록 훈련받아야 합니다. 매 순간 나를 비우고 하나님의 뜻을 채우며 행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기도입니다.

나는 매 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까?

- ❶ 매 순간 인도하심을 구하며 성령으로 살아갑니까?
- ❷ 인도하심대로 살아가는 훈련을 받고 있습니까?